하루하루의 최선과 문화보국

정승우 재단법인 유중문화재단 이사장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새 달력을 펼쳐 드니 2011년 신묘년 새해의 설렘과 다짐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2011년, 재단법인 유중문화재단과 복합문화공간 유중아트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당시 주변의 우려가 매우 컸다. 사실 나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법학 전공자였고, 30대 초반의 젊은 패기만으로 무작정 시작하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과 엄청난 액수의 운영 자금 조달도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었다.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결심할 당시 나 자신과 한 약속이 있다.

"항상 최선을 다하자."

특정 분야에 능숙하거나 경험이 풍부하면 오히려 자만감에 빠지거나 나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초행길일 때 오히려 안전운행을 하듯이, 비전공자이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매 순간 최선과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뛰어왔다.

순간순간의 최선, 하루하루의 최선이 12년간 모여 '유중'이라는 캔버스를 가득 채우게 되니 어느덧 선명한 사명감이 생겼다.

한국문화예술의 체계화·전문화·국제화를 통한 문화보국(文化保國)을 위해 다음 12년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나와의 약속과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희망차게 계묘년을 시작해본다. 아울러,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선이 모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새해를 꿈꾸어본다.